글쓰기 능력의 중요성

이익섭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얼마 전 한 일간지에 약 2주일의 간격을 두고 두 편의 글이 실린 적이 있다. 두 편이 모두 대학교수의 글이었고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비슷한 성격의 글이었다. 독자에게 자기의 주장을 펴는 일종의 논설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두 편의 글이 주는 호소력은 꽤 달랐다. 좀 길지만 먼저 그 글 전문(全文)을 보기로 한다.

(1) 얼마 전 우연히 TV에서 가수 양현석이 자신의 옛 동료인 서태지를 평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신곡 창작을 위해 6개월간 집 밖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피가 마르는 고된 작업을 하더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이 독창적인 학술논문 한 편을 쓰기 위해 과학자가 겪어야 하는 과정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천재성보다는 집념 어린 노력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잘 알다시피 정치, 경제가 모든 것을 좌우하며 교육, 문화, 과학기술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린다.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IMF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외쳤고, IMF이후에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외쳤다. 그러나 웬일인지 과학기술자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

이 과학기술자는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밑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처럼 사회적으로 대접도 못 받는 과학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너무 어렵고 긴 공부와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선입견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풍조를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으나 나는 이와 같은 사회적 통념의 몇 가지 틀린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자신의 적성을 살리고 사회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하려면 두뇌가 우수하고 창의력이 높은 사람은 과학기술계나 예술계로 진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사회적 보상 체계는 이와 다르므로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은 법대와 의대로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단 개인적 부와 명예 문제를 접어두고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 온 역사적 원동력이 어디에 있나 생각해 보라.

과거 수십 년간 수많은 정치가, 사업가들이 부침하였으나 대통령 등 몇몇 사람을 제외하면 우리 사회의 모습은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민주주의 역량,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TV와 휴대폰,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변해 온 것이 사실 아닌가? 많은 재벌과 기업들이 명멸하였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또한 앞으로 정보통신과 생명공학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신기술 뒤에는 과학의 위대한 발견-발명이 뚜렷하게 자리잡고 있다.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과학의 업적이 상대성 원리, 반도체, DNA 이중나선 같은 극히 짧은 단어들로 축약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물론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아닌 우리들로서 개개인이 이룰 수 있는 일은 극히 작지만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학문적 업적을 이루거나,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보람을 가질 수 있고, 이것들의 집합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서태지가 신곡 한 소절을 작곡하기 위해 밤을 지새웠다면 우리 과학자들도 자신의 논지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할 한 문장을 찾지 못해 며칠씩 고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던 기쁨도 있다. 물론 과학기술자란 직업이 큰 명예와 부를 얻는 직업은 아니다. (다행히 빌 게이츠와 같은 예외도 있다.) 그러나 화려한 직업을 지망한 사람들 중 과연 자기 꿈을 이룬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오히려 학문 분야로 진로를 정한 경우를 예로 든다면 우리나라의 교수 숫자가 수만 명 정도이니 좀더 소박한 목표일지라도 성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조그만 꿈들을 이루는 데 자부심을 갖고 떳떳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과학기술자는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학창시절에 실력을 착실히 쌓고, 영감과 노력에 따라 가장 정직하게 결과를 돌려주는 과학기술에 더욱 흥미를 갖기를 기대한다.

새 천년에 전개될 생명 복제, 유전병 치료, 생태계 위기 등 새로운 삶의 지평과 도전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가 정해 준 대로만 따라가야 할 것인가? 신물질 개발, 전자 상거래 등 새로운 정보사회에서 남의 뒤치다꺼리만 할 것인가? 우리 세대의 많은 과학기술자가 이름없이 감당했던 기초작업 위에서 다음 세대에서는 반드시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될 것을 확신한다.

(2) 우리 고대사에서 가장 연구가 부진한 분야 중 하나가 백제 초기사이다. 관련 사서에 남아 있는 기록이 너무도 빈약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를 보더라도 백제에 관한 서술은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 양과 내용 면에서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는 고고학적 자료의 활용밖에 없다. 하지만 백제 초기의 국가형성과정을 보여줄 고고학적 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일반 시민들에게 백제와 관련된 지역을 떠올리라면 대개는 공주와 부여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700년 가까운 백제 역사 중에서 공주와 부여에 도읍을 정하였던 시기는 합해서 185년에 불과하다. 그 나머지 기간은 현재의 서울이 백제의 도읍이었다. 그렇다면 서울시 어딘가에는 백제, 그것도 이른 시기의 왕성이나 고분 등의 유적이 널려 있어야 마땅하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강남구-송파구 일대로 압축된다.

일제 강점기에 부족하나마 간헐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석촌동 일대에 80여 기의 백제 고분이 분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무덤들은 규모로 보아 왕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었다. 1925년에는 대홍수로 풍납토성의 성벽 한쪽이 무너지면서 중국에서 만든 청동 자루솥이 발견되었다. 당시로서는 매우 귀했을 중국제 수입품이 출토되는 성은 왕성

을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서울시 강남에 위치한 백제 초기 유적에 대한 조사와 보존 대책은 전무하였다. 그런 가운데 70년대부터 본격화된 강남 개발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용케 살아남은 백제 유적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1500년 이상을 버텨온 유적들이 중장비에 밀려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80여기에 달하던 석촌동 고분군은 4기 밖에 남지 않았고, 풍납토성은 성의 안팎에 들어찬 주택들로 인해 질식할 지경에 이르렀다. 백제 초기의 국가형성과정과 그 실체에 대한 연구는 안개 속을 헤맬 수밖에 없었다.

1997년 풍납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던 백제 초기의 유적이 현재의 지표면보다 4m 아래에 고스란히 살아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뇌사 판정을 받았던 풍납토성은 한국판 폼페이로 부활하였다. 몇 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토성 내부에는 마을을 방어하기 위한 세 겹의 도랑[環濠]이 있었으며, 수백 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발견된 유물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백제 유물 중 최고 수준이어서, 이 성이 왕성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올해 6월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단에 의해 성벽 절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상황은 결정적인 국면으로 치달았다. 성벽 바닥의 폭이 40m, 남아있는 높이만 하더라도 9m에 이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런 대규모의 성은 아직 유례가 없다. 성벽을 쌓은 방법은 진흙을 수십 겹 다져 올리고, 안팎의 끝 부분에는 깬 돌과 강돌을 4단에 걸쳐 쌓아 올렸다. 어림짐작에도 수십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3~4세기경 이 정도의 공력을 들여 쌓았다면 왕성임이 틀림없다. 수백 년간 미궁에 빠져 있던 백제 초기 왕성의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백체 초기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순간이다.

하지만 상황은 비관적이다. 앞으로 몇 년 이내에 토성 내부는 고층아파트로 뒤덮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서울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부활하여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생명은 이제 우리 손에 달려 있다. 하지만 '1999년 우리'에 대한 평가는 후손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들이 내릴 평가는 둘 중 하나이다. 하

나는 개발과 유적 보존이라는 두개의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문화인이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황금에 눈먼 몰역사적 야만인이었다는 것. 당신은 어떤 평가를 원하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앞의 예문(2)는 잘된 글이고 예문 (1)은 그렇지 못한 글이다. 예문 (2)는 필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지가 분명하다. 그것이 분명하게 전달된다. 그리고 호소력도 있다. 그런데 예문 (1)은 그렇지 못하다. 대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는 알겠는데 태도가 분명치 않다. 그만큼 호소력도 적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예문 (2)는 글이 일관성이 있다. 한 단락 한 단락이 통일성 있게 만들어져 있고, 그것들이 순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만큼 편안하게 읽힌다. 그러면서 정말 영영 우리 앞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릴지도 모를 귀중한 문화유산의 위기 상황을 실감 있게 전달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양심을 향해 외침으로써 우리를 숙연케 하는 힘까지 발휘한다.

이에 비해 예문 (1)은 무엇보다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초점도 흐리다. 처음 시작은 꽤 그럴 듯해 보인다. 관념적인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로 실마리를 풀어가면서 독자를 곧바로 이야기의 한복판으로 이끌어들이는 힘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둘째 단락에서부터 이미, 그리고 뒤로 갈수록 더욱 우리는 혼란을 겪기 시작한다. 앞에서는 '천재성보다는 집념 어린 노력'을 내세우고서는 뒤에서는 '너무 어렵고 긴 공부와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잘못된 선입관의 하나로 말하는가 하면 '두뇌가 우수하고 창의력이 높은 사람'을 과학계로 오라고 호소한다.

그 뒤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를 바꾸어 온 진정한 힘은 정치가나 재벌이기보다 과학이었음을 강조해 놓고서는 이내 꼬리를 슬슬 뺀다.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과학의 업적이 상대성 원리, 반도체, DNA 이중나선 같은 극히 짧은 단어들로 축약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라고 잔뜩 꿈을 부풀려 놓고서는 "그러나 화려한 직업을 지망한 사람들 중 과연 자기 꿈을 이룬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수가 수만 명에 이르니 안심하라는 쪽으로 움츠러드는 것이다.

한 단락 안에서의 통일성도 몇 곳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서태지가 신곡 한 소절을 작곡하기 위해 밤을 지새웠다면 우리 과학자들도 자신의 논지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할 한 문장을 찾지 못해 며칠씩 고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던 기쁨도 있다. 물론 과학기술자란 직업이 큰 명예와 부를 얻는 직업은 아니다. (다행히 빌 게이츠와 같은 예외도 있다.) 그러나 화려한 직업을 지망한 사람들 중 과연 자기 꿈을 이룬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의 단락은 우리에게 큰 실망을 준다. 과학자들이 고심하는 것이 소설가가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도 이상하거니와 이 단락은 도무지 한 단락으로서의 통일성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문 (1)은 전체적으로 호소력이 적다. 무엇보다 과학자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일관성 있게 제시해 주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하나만 더 지적한다면 사소한 것이지만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과학의 업적이 상대성 원리, 반도체, DNA 이중나선 같은 극히 짧은 단어들로 축약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물론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아닌 우리들로서 개개인이 이룰 수 있는 일은 극히 작지만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학문적 업적을 이루거나,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보람을 가질 수 있고, 이것들의 집합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맥이 풀려 있다. 뒷부분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짧은 단어들이 사실은 우리의 작은 성과들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라는 쪽으로 이끌어 가야 한 단락으로서의 통일성도 높이고 글에 힘이 붙을 것이다.

거의 같은 무렵에 발표된 비슷한 성격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글을 비교해 보도록 하기도 하였다. 글쓰는 수련이 왜 필요한가를 저절로 터득시켜 주리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2

글쓰기 능력이 왜 중요한가라는 물음은 거의 우문(愚問)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말은 왜 배우느냐, 말을 할 줄 아는 일이 왜 중요한가나 마찬가지의 물음이며, 그것에 대해 대답을 구하는 일이 새삼 필요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를 관장하는 뇌를 다쳤을 때 나타나는 언어 장애 현상, 즉 실어증(失語症, aphasia)에는 그 다친 뇌의 부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하나는 말을 극도로 더듬으며 발음이 잘 안 되어 애를 쓰는 증세로 이른바 Broca씨 실어증이다. 할 말은 제대로 알고 일단 발음이 되면 올바른 말이 되는데(이때에도 전치사나 접사류는 빼먹는 일이 보통이지만) 제대로 발음이 안 되어 애를 먹는 증세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체로 말은 술술 잘 하는데 내용이 없는, 하는 사람도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증세로서 이른바 Wernicke씨 실어증이다. 어느 경우나 언어 장애요 비정상적이다. 언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요 불편을 주는 경우임이 분명하다.

글쓰기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좀 과장하면 결국 이와 같은 일종의 언어 장애 현상, 말하자면 일종의 실어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문장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나, 한 문장 한 문장은 제대로 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바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나 모두 온전한 경우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걷기를 잘 해야 한다. 거의 타고난 재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너나없이 걸음마부터 시작하여 뜀박질까지 다 부지런히 익혀 일상 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는다.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능력도 인간의 사회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다. 의사소통은 인간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일 것이다. 의사소통이 막힌 인간 사회란 상상키 어렵다. 그러한 의사소통의 도구인 글을 제대로 구사(驅使)하지 못한다면 무슨 장애를 받아도 받을 것이며, 무슨 불편을 겪어도 겪을 것이다. 쉽게 말해 걷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받는 제약과 마찬가지의 제약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러한 제약과 불편은 종내는 의사소통의 상대자들에게 어떤 불편을 입혀도 입힐 것이며, 어떤 피해를 주어도 줄 것이다.

이것은 한 개인을 두고 보나 한 국가를 두고 보나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글쓰기가 자신이 없어 써야 할 편지를 못 쓰고 글쓰기를 못해 꼭 남기고 싶

은 이야기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장애자 노릇을 하는 것일 것이며, 기안문이나 보고서를 불명료하게 작성하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에 좋지 않은 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간의 의사소통이 그만큼 원활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만큼 국민이 겪는 불편이 커질 것도 너무나 자명하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고 그 나라 국민이 얼마나 문화 국민인가를 재는 척도로서 그 국민들의 글쓰기 능력의 평균치를 거론하곤 한다. 문맹(文盲)이 많은 나라는 결코 선진국일 수 없을 것이다. 반면 거의 모든 국민이 높은 글쓰기 수준을 갖추었다면 그 나라는 결코 후진국일 수 없을 것이다. 한 개인도 글쓰기 능력을 바로 갖추어야 지적(知的) 활동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지성인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의 글쓰기 수준이 제 궤도에 올라야 우리도 문명국이요라고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글쓰기 능력은 의외로 크고도 큰 면이 있다.

3

그렇다면 우리의 사정은 어떤가. 반드시 비관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썩 좋은 상태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생각되는 인사(人士)들의 글에서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의 예문 (1)에서 그 일면을 보았지만 사실 그것은 문장 하나 하나는 정확히 쓴 경우여서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기초적인 데서 글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한 것이다. 다음에 그 몇 경우를 보기로 한다.

(3) 특히 금년 여름은 무더위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란 예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난에 따른 예산사정으로 냉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실정임으로 각 실·국·기관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하계복장을 정장대신 노타이, 반팔 와이셔츠 등을 착용하여 에너지 절약 및 근무능률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문은 정부의 한 중앙 부서에서 보낸 공문의 일부다. 한마디로 비문(非文)이다. 문장을 일부러 이렇게 뒤범벅을 만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수선한 글인 것이다. 무엇보다 '각 실 국 기관에서는'이 이 문장 전체의 주어이므로 그 다음은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반팔 와이셔츠 등을 착용케 하여' 정도가 되면 좋을 것이다. '에너지 절약 및 근무능률을 제고하여' 부분도 이상하다. '에너지 절약 및 근무능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앞뒤가 대등한 명사구(名詞句)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대로 두면 '제고하여'가 '에너지 절약'에까지 걸려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제고하여'라는 이상한 말이 되기 때문이다. 띄어쓰기며 '실정이므로' 라고 해야 할 것을 '실정임으로'라고 한 것도 물론 이 글이 낙제 수준임을 입증하는 데 일조(一助)한다.

다음 예문은 어느 타이어 생산 업체가 낸 광고문의 일부다. 자기 회사 제품의 우수성을 광고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즉 '제동성과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라고 하면 '제거하기'가 '제동성'에도 걸려 '제동성을 제거하기 위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아니 제동을 걸 때 제동이 잘 걸리지 않는 타이어를 만들었다는 광고를 하고 있지 않은가.

(4) 좌우측 숄더부는 제동성과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 특수한 기법으로 개발된 오로라 818만의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정부 부서나 회사 광고부나 아무나 앉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그만한 자리에서 아직 이런 수준의 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코 한 개인의 문제라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수준이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다른 자리에서 나라에서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치고 다듬으며 공들여 만든 「국민교육헌장」이 얼마나 모호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가를 특히 다음 예문 (5)로 분석해 보인 일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준이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다는 실례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 예문 (6)도 그 중 하나다. 이 역시 이제는 폐기된 「청소년 헌장」의 한 조항

인데 주체가 학교측인지 학생 스스로인지조차 불분명한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문장이다. 그리고 예문 (7)은 그 「청소년 헌장」과 함께 청소년 문제를 다룬 「'96 청소년백서 발간」이라는 정부 문서의 한 부분인데 일일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어려운 어지러운 문장이다.

(5)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6) 학교는 청소년이 조화로운 배움을 통하여 교양과 지식과 체력을 기르는 곳이다. 자질을 존중하고, 자아실현을 통하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을 가르치며, 문화의식과 민주 시민 정신을 높인다.

(7)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 미래 한국의 모습, 미래 세계의 모습 등에 대한 준비성과 바람직한 변화 창조능력 제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에 초점이 없고 또 이쪽 이야기를 하다가는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주장을 바꾸고 하면서 사람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글로도 그렇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 독자에게 그러한 피해를 입히는 일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바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손해와 아울러 자신의 평가를 나쁘게 만드는 손해를 입힐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 나라에서 어수선한 글이 횡행하고 국민이 그 어수선한 글에 맞추어 어림짐작으로 세상살이를 한다면 이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면 글쓰기 능력의 우열은 결국 한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로 직결되는 일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하나 첨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는 이 방

면으로 지도자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문장강화」류가 더러 있지만 전문성이 별로 없는 것들이다. 겨우 초등학교 학생들의 글짓기를 대상으로 하면서 전문가 행세를 하는 일도 우리의 열악한 수준의 일단일 것이다. 이 방면의 저술이 넘쳐흐르는 서양과 비교하여 너무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가 적을 뿐 아니라 적어도 글쓰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글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일도 많다. 앞에서도 대학교수의 글을 문제 삼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방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만 더 보기로 한다.

(8) '文化'란 말과 '哲學'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처럼 그렇게 흔하게 쓰이고 있는 곳도 아마 드물 것이다. '문화'의 빈곤, 그리고 '철학'의 빈곤에서 생겨난 逆說的인 현상인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빵집 간판이나 구둣방 간판에까지 이 '문화'란 말이 따라다닌다. 그런 데일수록 문화와는 인연이 멀 정도로 불결하다. 특히 약광고나 상품광고에서는 으레 문화인이란 말을 걸고 넘어지기가 일쑤다.

하기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박물관이나 대학강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 음식점이고 양복점이고 간에 문화란 말이 탈 될 것은 없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심한 것은 '철학'이란 말이다. '手相哲學', '觀相哲學', '姓名哲學' 따위의 말을 서울 시내의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 말이다. 대개 그 관상쟁이들의 경력을 보면 다년간 인생철학을 연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금을 보고 성명풀이를 하고 관상을 보고 다니는 현대의 이 수상한 '칸트'들을 철학자로 대접하기엔 어쩐지 좀 겸연쩍다. 개중에는 고색창연한 周易의 이론을 꺼내는 자도 없지 않고 혹은 最現代式 實證哲學을 배경으로 삼고 현대 통계학을 운운하는 손금쟁이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인공위성이 떠돌고 있는 이십세기의 후반기다. 그러므로 그런 한심한 철학자(?)들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그 앞에 쭈그리고 앉은 새파란 남녀들이다. 취직은 언제나 될까? 언제나 되야 돈을 벌까? 주로 이러한 것들이 인생철학자를 찾아오게 된 고민거리다.

이 글은 필명(筆名)이 높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분의 베스트 셀러의 한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재치가 넘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잘 된 글이라 할 수는 없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글에서 가장 취약점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단락에 대한 개념 부족이라 생각하거니와 이 글도 그 점에서 보면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첫 단락에서 "그런 데일수록 문화와는 인연이 멀 정도로 불결하다"는 빼어버려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단락의 통일성을 깨기 때문이다. 또 둘째 단락은 해체하여 그 첫 문장은 앞 단락으로 이어 붙여야 할 것이며, 그 다음 문장부터는 셋째 단락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문화 얘기는 문화 얘기대로, 철학 얘기는 철학 얘기대로 구분을 지어 주어 짜임새 있는 글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이외에도 이 글에는 글이 긴밀하게 이어지지 않는 곳이 더 있고 그로써 이 글은 나로서는 아주 낮게 평가하는 글이다.

5

이제 우리는 글쓰기에 좀더 냉엄한 태도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스스로도 글쓰기에 정성을 들여야 하겠고 남의 글에도 비판적인 안목을 가져 나쁜 문장의 글을 덤덤히 넘기거나 더구나 그것을 베스트 셀러로 만들어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좋은 글은 좋은 음악을 듣는 즐거움도 주므로 좋은 글 많은 세상이 이래저래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는 세상일 것이다.